

시리즈 후광 VS 차승원표 코미디 VS 마블리 파워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타짜3’ 전작 명성+반전 스토리 ‘힘을...’ 가족영화의 미덕 강점 ‘나쁜...’ 믿고 보는 마동석 액션

추석 연휴를 겨냥한 세 편의 한국영화가 11일 나란히 관객을 찾는다. ‘타짜: 원 아이드 잭’과 ‘힘을 내요, 미스터 리’, ‘나쁜 녀석들: 더 무비’이다. 주말이 겹친 탓에 연휴는 단 4일 뿐. 정부 행거보기관 불가능한 만큼 ‘엄선’의 과정은 필수다.

●이야기...도박판 타짜 VS 아빠와 딸 VS 범죄 소탕

‘타짜3’는 성공한 1·2편에 이어 도박판 타짜들의 치열하면서도 처절한 세계를 다시 펼쳐는 ‘영리한’ 후속편이다. 주인공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도일출(박정민). 타고난 승부기질로 도박판을 기웃대던 그가 의문의 남자 애꾸(류승범)

와 만나 운명을 건 한판 승부에 나선다.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을 내세워 촘촘하게 짠 이야기가 반전을 거듭한다.

차승원이 12년 만에 코미디로 돌아온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지적장애를 가진 철수 앞에 갑자기 딸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2003년 2월 일어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소재가 녹아있다.

범죄자들이 더 나쁜 악인을 잡는 범죄소탕극인 ‘나쁜 녀석들’은 2014년 방송한 OCN 동명 드라마의 설정과 주요 캐릭터를 차용한 영화 버전이다. 착실하게 살아 가려는 조직 보스(마동석)와 ‘미친개’로 불리는 형사(김상중)가 다시 뭉쳤다.

●경쟁력...시리즈 고유한 매력 VS 무난 가족극 VS 익숙한 마동석

‘타짜3’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어울리는 수위의 도박판으로 관객을 인도한다. 잔혹한 욕망, 목숨 건 복수, ‘울인’과 ‘배팅’을 넘나드는 시리즈의 개성과

매력이 여전하다. 박정민과 최유화의 베드신보다 강렬한 이광수의 전라 노출은 일종의 보너스다.

하지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은 곧 명절 가족 관객 동원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가족영화로서 미덕이 확실하다. 장애를 가진 아빠, 혈액암에 걸린 딸의 동행이 눈물샘을 자극한다. 일상에서 잊혀진 소중함도 일깨운다. 차승원은 “사회 곳곳의 고마운 분들,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만들새가 험거운 ‘나쁜 녀석들’이 기대 부분은 역시 마동석이다. 주먹 한 방에 수십명을 쓰러뜨리는 ‘마동석표 액션’이 반복된다. 악을 무찌르는 통쾌함은 있지만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아 감이 빠진다.

●약점...1편 아우라 VS ‘눈물’의 코미디 VS 본전 생각

모든 영화가 완벽할 순 없다. 보는 관점에 따라 약점은 있다. ‘타짜3’는 태생부터 비교의 운명에 놓은 작품. 조승우가 출연한 1편의 아우라가 13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하다. 비교의 시선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차승원의 코미디’를 줄곧 강조한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웃음’보다 ‘눈물’에 가까운 영화다. 코미디를 기대한 관객이 다소 허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묵인 시도를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나쁜 녀석들’은 자칫 본전 생각이 나게 할 수 있다. “드라마보다 캐릭터를 선명하게 하고, 코미디를 통해 이야기를 확장했다”는 손용호 감독의 기획의도가, 말 그대로 ‘의도’로만 남았다. 차라리 드라마 ‘나쁜 녀석들’을 몰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소속사 YG 리스크에도 꽃꽂한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비 10억 뷰 돌파 히트 21일 데뷔 첫 국내 단독 팬미팅도

걸그룹 블랙핑크가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전 세계에서 입지를 구축해나가는 것도 시선을 끌기 충분하지만, 무엇보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악재가 잇따라 불거진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를 모은다.

블랙핑크는 최근 뮤직비디오 ‘뚜두뚜두’로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하고 미국레코드협회로부터 ‘골드’ 인증(앨범 50만 장 이상 판매)을 받는 등 YG 소속 가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외 팬덤을 확장해나가며 왕성하게 활

동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14일까지 전 세계를 돌며 투어를 이어온 이들은 이 기세를 몰아 오랜 만에 국내 팬들과 만난다. 21일 오후 1시와 6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9 프라이빗 스테이지 챕터1’이라는 타이틀로 팬미팅을 연다.

이번 행사는 데뷔 3년 만에 여는 첫 단독 팬미팅으로, 3000~4000명까지 동원할 수 있는 중대형 공연장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장세를 가늠하게 한다. 해외 투어로 국내 팬들과 자주 소통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팬미팅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포토북과 DVD를 내놓는다. 9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2019 블랙핑크 서머 다이어리 인 하와이’(BLACKPINK’S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갖은 논란과 의혹 속에서도 걸그룹 블랙핑크가 국내외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SUMMER DIARY IN HAWAII) 포토북을 발매한다. 멤버들이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 등을 담았다.

이후 또 한번 아시아권 영역 확장에 나선다. 지난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데뷔한 이들은 11일 일본 버전 ‘킬 디스 러브’ 앨범을 발표하고 현지 활동에 나선다. 최근 현

지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 에이-네이션, 서머소닉, 와이어드 뮤직 페스티벌 등 무대에 오른 이들은 여세를 몰아 12월 도쿄돔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오사카 교세라돔, 2월 후쿠오카 야후오코돔까지 3개 도시에서 4회 돔 투어를 펼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부산국제영화제, 글로벌 영화제로 재도약”

이용관 이사장 “또 다른 경계” 도전 10월3일 개막작은 카자흐스탄 작품

“글로벌 영화제로 재도약한다.” 10월3일 막을 올리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사장이 밝힌 포부다. 2014년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정치적 외압 논란, 그로 인한 파행적 운영 상황을 딛고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선

언한 뒤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내년 25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영화제로 재도약하며 또 다른 경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핵심은 상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카자흐스탄의 예를란 누르무캄베토프·리사 타케바 감독의 ‘말도둑들, 시간의 길’을 개막작으로 모두 85개국 303편의 정단편 영화를 상영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사장과 전양

준 집행위원장, 차승재 아시아필름마켓 운영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영작을 중심으로 운영 방향 등을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비롯해 모호센 마흐말바프 감독의 ‘마르제와 엄마’, 켄 로치 감독의 ‘소리 위 미스트 유’ 등 거장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아이콘’ 부문을 신설했다.

또 한국영화 100년을 맞아 김기영 감독의 ‘하녀’,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등 한국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구하라, 일본서 솔로 데뷔 사생활 문제 딛고 새 출발

11월13일 싱글 ‘미드나이트 킨’ 발표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는 아픔을 딛고 일본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전 남자친구와 법적 다툼 중인 가운데에서도 활동



구하라

재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구하라는 11월13일 일본에서 솔로 데뷔 싱글 ‘미드나이트 킨’을 선보인다. 동명 타이틀곡은 그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는 댄스곡으로, 카라 활동 당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히트곡 ‘미스터’의 스타프

가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가사를 쓴 ‘헬로’도 담았다. 구하라는 이번 활동을 통해 재가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그에게 지난 1년은 사생활 문제로 구설과 논란에 휩싸였던 시기였다. 2008년 카라로 연예계 데뷔하고 국내는 물론 한류스타로서 누린 인기가 무색할 만큼 최대 위기와 고비를 맞았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

11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4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집행유예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기고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빅히트-쏘스뮤직 걸그룹 오디션

그룹 방탄소년단의 기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함께 걸그룹을 선보인다. 빅히트는 4일 “2021년 데뷔를 목표로 신인 걸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10월5일 미국 LA와 뉴욕에서 시작해 싱가포르, 태국 방콕, 일본 도쿄, 대만, 한국 등을 거쳐 27일 베트남 호치민까지 총 16개 도시에서 열린다.

조승우·배두나 ‘비밀의 숲2’ 합류



조승우

배두나

“‘비밀의 숲’ 시즌2를 제작한다. 방영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즌1은 2017년 방영해 연기자들의 열연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호평을 받았다. 시즌2에는 시즌1의 주인공인 조승우와 배두나가 다시 출연한다. 시즌1의 이수연 작가가 맡아 대본 집필을 시작했으며, 연출자는 ‘팬텀걸즈’ ‘함부로 애틋하게’ 등을 연출한 박현석 PD가 맡는다.

백지영, 매니저 설립 기획사 동지



백지영

가수 백지영의 의리가 화제다. 백지영은 최근 설립된 연예기획사 트라이어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백지영이 2006년 ‘사랑 안해’ 때부터 13년 동안 함께 해온 매니저 최동열 대표가 설립한 곳이다. 서로에 대한 신뢰로 함께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트라이어스 측은 4일 “백지영이 음악, 방송,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